

〈傳〉 研究의 樣相과 課題

안 창 수

I

한문학의 한 양식인 〈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로 〈전〉의 갈래 속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고, 인접 갈래와의 관계도 꾸준히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연구의 연륜도 축적되어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볼 시기가 되었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다루어진 이래 〈전〉은 이른 시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태준은 〈삼국사기〉 열전에 속해 있는 작품들을 열거하며, 이들이 모래 속에 반짝이는 黃金粒처럼 훌륭한 설화이자 소설작품이라 했다.¹⁾ 〈전〉이 소설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說話와 傳奇, 野談 등을 모두 소설로 다루었던 그의 기준에 의해 〈전〉은 소설의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대체로 그대로 전수되어, 이병기는 〈삼국사기〉 열전 소재의 작품들이 소설문학의 터전을 이루었다고 보았고²⁾ 이가원은 설화계의 소설 또는 志怪·假傳系의 소설이라 하여 〈전〉을 소설의 범주 속에 넣었다.³⁾ 그러나 조운제는 〈전〉과 소설을 나누어 보려는 자

1) 金台俊, 朝鮮小說史(學藝社, 1939, 28~37쪽).

2) 李秉岐, 韓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59, 76쪽).

3) 李家源, 韓國漢文學社(民衆書館, 1961).

세를 취했다.

小説의 發達은 傳說로서 先驅를 잡는데, 三國史記와 三國遺史에는 三國時代에 流轉하던 傳說과 說話가 꽤 많이 收載되어 있고, 또 高麗에서는 殊異傳과 같은 完全한 說話集이 나왔다. 그러더니 高麗中期를 넘어서자 說話는 점점 詩話 野談과 缺託하여 李奎報의 麴先生傳, 李 詹의 楮生傳과 같은 假傳體로 進歩하여 벌써 많이 소설에 가까이 接近하여 왔다. 그러나 假傳體는 아직 小説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充分한 小説的인 創意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뿐인데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윤제는 <전>을 소설의 전단계 양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假傳을 소설로 이어지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양식으로 보아서, 설화-가전-소설이라는 진화론적 도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설화-가전-소설이라는 진화론적 도식은 가전을 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양식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가전은 소설을 다루려는 사람이면 집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인식되며 조윤제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박성익은 <삼국사기> 열전 소재의 작품들을 설화로 분류하였고, 가전이 설화와 소설을 연결시키는 과도기적 형태라 하여,⁵⁾ 조윤제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기형도 조윤제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임춘과 이규보, 이곡 등의 가전작품을 대상으로 plot을 분석한 뒤 이들이 설화와 소설을 연결해 주는 과도기의 문학양식이라 하였다.⁶⁾ 그러나 각 작품의 plot을 분석해 놓았을 뿐,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어째서 과도기적 양식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에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가전이 설화와 소설의 과도기적 양식이라 前提하고 각 작품의 plot을 분석해 놓았지만 이끌어낸 결과로 전체를 입증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는 말이다.

4) 趙潤濟, 國文學概說(東國文化社, 1955, 152쪽)

5) 朴晟義, 韓國古小說論과 史(日新社, 1973).

6) 申基亨, 假傳體文學論 上, 下(국어국문학 15, 17집, 1956, 1957).

정주동은 의인소설이란 명칭을 내세워 고려시대의 가전작품들이 뒤에 〈별주부전〉이나 〈서동지전〉과 같은 의인소설에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했고,⁷⁾ 김광순도 의인문학이라 하여 정주동의 명칭을 이어 받아, “麗末 數個年間に 從來의 說話에서는 거의 離脫하고 小説에 매우 接近하여 鮮初에 本格的인 小説을 出現케 한 畸形態의 擬人文學(一名;假傳體)이 短時日內에 雨後竹筍처럼 簇出”⁸⁾ 하였다고 하며, 가전을 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작품으로 보려는 견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김현룡은 임춘의 〈국순전〉을 대상으로 이 작품이 설화나 전설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구성적이라는 점에서 소설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⁹⁾ 가전작품들을 모두 소설 이전의 과도기적 양식으로 분류하려는 견해에 반대했다. 일정한 양식의 이름으로 개별적인 작품들의 갈래를 모두 한 가지로 재단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순전〉이 소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다시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김현룡의 주장은 개별적인 작품들이 모두 〈전〉의 양식적 특성을 충실하게 이어받은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전〉의 양식도 변화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로 가전에 집중되며, 가전을 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양식으로 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갈래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그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래이론이 뒷받침되지 못해 가전을 소설로 인정하는 그렇지 않은 그들의 주장은 공소한 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동일이 갈래이론을 바탕으로 가전을 교술문학으로 분류하고, 가전은 무신 집권이후 실질적이며 실천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신흥 사대부들이 그들의 새로운 표현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갈래라고 주장했다.¹⁰⁾ 교술은 그의 갈래이론에서 나타난 독특한 갈래인데,

7) 鄭註東, 古代小說論(螢雪出版社, 1966).

8) 金光淳, 韓國擬人文學의 史的 系譜과 性格 上(語文學 16집, 韓國語文學會, 1967).

9) 金鉉龍, 麴醇傳과 麴先生傳(국어국문학 65,66합번호, 1974)

10) 趙東一, 假傳體의 장르規定(장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1971).

표현방법에서의 전환과 비전환 그리고 작품내적 및 외적 자아와 세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볼 때, 비전환 표현방법을 취하며 작품외적 세계가 작품내적 자아 및 세계에 개입하여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 세계 쪽으로 귀착된 것을 교술이라 했다. 그의 갈래이론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판되었고, 그에 따라 계속적인 보완작업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질서정연한 이론체계 위에서 <전>의 갈래를 분명히 하고, 가전의 형성배경을 역사철학적으로 해명하려 했다는 점은 종래의 연구수준을 분명 한 단계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조수학은 가전의 명칭이 가전체, 의인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는 현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가전이 설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며 동양에서 옛날부터 있어 온 기술양식인 傳記의 한 종류로 서사문학에 귀속된다고 했다.¹¹⁾ 그렇다면 가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가전 나아가 전기의 양식적 특성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가전의 편철성”이라는 그의 논문¹²⁾ 은 이런 관심 아래에서 나온 것으로, 가전은 하나의 주제와 연결된 단편적인 사건들이 편철되어 엮여진 것일 따름이라고 했다.

안병설도 중국의 가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가전이 의도적인 허구의 寓言으로 인간생활을 풍자하고 경계하며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려는 욕구나 울분을 발설하기 위한 것이지만, 傳奇 이후에 발생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소설의 발달과정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했다.¹³⁾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무신난 이후 현실에서 소외된 문인들에 의해 풍자나 破閑으로 울분을 달래고 은유로 일깨우기 위해 고려시대의 가전이 쓰여졌고,¹⁴⁾ 부분적으로는 이런 전통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어지러운 현실을 풍자하고 心學과 持敬工

11) 曹壽鶴, 假傳研究(語文學 29호, 韓國語文學會, 1973).

12) 曹壽鶴, 假傳의 編綴性(嶺南語文學 1輯, 嶺南語文學會, 1973).

13) 安秉高, 中國假傳文學 研究(中國學報 15輯, 韓國·中國學會, 1974).

14) 安秉高, 高麗假傳의 形成과 그 性格(北岳漢學 1輯,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1978).

夫에 이바지하기 위해 心性假傳이 쓰여졌다고 했다.¹⁵⁾

II

80년대에 들어서며 〈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주로 假傳에 집중되어졌던 연구의 범위가 〈전〉 일반으로 확대되었고, 연구의 방법론도 다양해졌다. 물론 이 시기에 와서도 가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명순은 〈죽부인전〉과 〈만복사저포기〉를 대비시켜 두 작품을 연결해 주는 내면적 흐름의 맥이 있다고 하였다.¹⁶⁾ 가전을 소설 성립 직전의 과도기적 선행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죽부인전〉과 같은 가전작품을 가전체 소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가전체 소설은 〈수성지〉, 〈천군연의〉 등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전적 수법에 의해 쓰여진 소설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이것을 고려시대의 가전에도 적용함으로써 가전의 소설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전의 소설성은 김광순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었는데,¹⁷⁾ 이들은 모두 가전이 허구적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호경은 가전이 사전의 체계와 구성, 서술방식 등을 본떠서 가볍게 즐기 위한 희필로 쓰여졌고, 史才를 함양하기 위한 수련용으로 쓰여졌다고 하며, 가전을 설화와 소설의 과도기적 형태 또한 초창기의 소설로 보는 견해에 반대했다.¹⁸⁾ 가전의 갈래를 규정짓고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 이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15) 安秉高, 李朝 心性假傳의 展開와 그 性格 (韓國學論叢 1輯,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1979).

16) 金明順, 竹夫人傳과 萬福寺栲蒲記의 內面的 聯關性 (加羅文化 1輯, 慶南大 加羅文化研究所, 1982).

17) 金光淳, 高麗後期 擬人文學的 形成과 文學史的 意義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螢雪出版社, 1975). 여기에서 그는 가전이 현실의 인생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창의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초창기 소설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18) 성호경, 가전체 문학의 성격 고찰 (경남대 논문집 9집, 1982)

알 수 있다.

80년대 초에는 가전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¹⁹⁾ 이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관심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단행본으로 결실되어 속속 나타나기도 했다. 조수학은 가전에 대한 관심을 소설까지 넓히는²⁰⁾ 한편 〈한국의 탁전과 가전〉²¹⁾이라는 단행본으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집결하여 보여주었다. 〈한국풍자문학연구〉²²⁾, 〈한국가전연구〉²³⁾ 〈한중가전문학의 연구〉²⁴⁾ 등의 단행본도 모두 가전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결실로 드러난 업적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특색은 아무래도 관심의 폭이 〈전〉일반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이용되었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전시기의 논쟁거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했고, 새로운 문제점들이 부각되기도 했다.

최신호는 〈전〉은 〈전〉일 뿐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라고 하며, “說話니 稗官文學이니 假傳體니 하는 名稱들을 小說 앞에도 設定해 놓고 이것들을 通時的인 進化的인 모습에서 把握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²⁵⁾ 설화와 소설, 가전과 소설의 관계를 진화론적 발전과정으로 설명했던 것은 김태준과 조운제 이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설화는 가장 원시적인 갈래가 되고 소설은 발전의 정점에 놓여있는 갈래가 되어, 도태와 발전의 법칙에 지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 19) 신현숙, 가전체 작품의 소설적 구성에 대한 고찰(청신여대 석사논문, 1980)
 구영진, 남령전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1).
 신혜수, 가전의 우의성(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2).
 임원대, 가전에 대한 한 고찰(원광대 석사논문, 1982).
 이인숙, 려날 가전문학 연구(세종대 석사논문, 1982).
- 20) 曹壽鶴, 假傳體 小說考(中國語文學, 嶺南中國語文學會, 1982).
- 21) 曹壽鶴, 韓國의 托傳과 假傳(嶺南大出版部, 1987).
- 22) 李貞卓, 韓國諷刺文學研究(二友出版社, 1979).
- 23) 安秉烈, 韓國假傳研究(二友出版社, 1986).
- 24) 金昌龍, 韓中假傳文學의 研究(開文社, 1990).
- 25) 崔信浩, 傳記 傳奇 小說(聖心語文論集5輯, 聖心女大 國文科, 1981).

최신호의 지적처럼 이들은 이런 법칙에 지배되지 않으므로, 진화론적 도식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양식사를 線的인 발전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최신호의 글은 이런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의 의미를 함께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권오성은 〈삼국사기〉열전을 대상으로 열전을 서사문학에 귀속시키고, 사실성이 두드러진 史傳, 家傳은 傳記小說로, 허구성이 두드러진 託傳, 假傳은 傳奇小說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계-출생-결연-고행-회운-행운이라는 고소설의 구성이나 신화에 나타나는 전기적 유형에 대비시켜 볼 때, 〈삼국사기〉 열전 소재의 작품들이 소설의 전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²⁶⁾

〈전〉을 서사갈래로 보고, 특히 史傳인 열전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서사의 양식이 이후 고소설의 양식을 결정짓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을 소설의 전단계 양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전〉과 소설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진화론적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 두 양식 사이의 관계가 보다 적실하게 드러날 수 있고, 이들을 바라보는 역동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중업은 史傳體와 變文을 살펴보고 소설이 사전과 변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했다.²⁷⁾ 사전체란 사마천에 의해 시도된 個人傳記를 위한 문체로 〈사기〉의 열전에서 시작되어 행장, 묘도문 등으로 확대되어 쓰이다가 개인의 私傳에까지 쓰여졌다고 하고, 조선시대의 소설은 개인의 사사로운 傳記記錄의 일종이며, 구성의 수법이나 종결어의 사용 용례가 사전의 것과 흡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변문은 특히 불경이나 故事를 부연하여 허구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하고,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변문이 소설의 효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소설의 체계와 구성의 원류를 史傳

26) 勸五星, 三國史記列記의 文學的 研究(嶺南大 碩士論文, 1981).

27) 趙鍾業, 古代小說 形成上의 史傳體와 變文(藏庵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1980)

에서 변문에까지 넓혀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명희는 한국문학 특히 소설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고, <삼국사기>열전을 대상으로 초기 <전>의 양상을 규명해 보려고 했다.²⁸⁾ <삼국사기>열전이 사건의 본질을 충실히 이어받아 사실을 추구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貶보다는 褒 위주로, 評보다 叙 述 위주의 기술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列傳 第五 貴山條를 분석하여 개인의 생애를 기술하는 방법이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영웅소설의 기본골격인 영웅의 일생이란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주명희는 이런 견해를 발전시켜 <전>의 양식적 특성이 소설로 수용된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해 보려고 했다.²⁹⁾ 영웅의 일생 또는 전기적 유형은 조동일과 김열규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우리 소설의 기본골격이 신화나 민담에서 물려받은 것임을 입증하는 데 기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삼국사기>열전의 기본적인 서술방식이었다는 것은 주인공의 일대기라는 수법이 소설에서 즐겨 사용되었던 가담이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형택은 김유신條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사기> 열전의 성격과 문학성 그리고 문학사적 위상을 점검해 보고 있다.³⁰⁾ <김유신전>은 인간의 주체적 역량과 역할이 중시되어 인간을 버리줄로 해서 서술한 인간본위의 史觀에 의해 쓰여져 있다 하고, 통일을 지향한 역사운동 과정에서의 파란만장한 대립과 갈등이 이 작품에 총체적으로 집적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김유신을 중심으로 하는 축에 관통되어 있고, 문학적 형상화에도 뛰어난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단순히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 풍부한 문학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양식의 고전적 결산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28) 朱明姬, 三國史記 列傳을 통해 본 初期 傳의 樣相(韓國古典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3).

29) 朱明姬, 傳의 樣式的 特性과 小說로의 受容樣相(서울대 박사논문, 1985).

30) 林燮澤,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성(韓國漢文學研究12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있다고 했다.

〈전〉은 사마천에 의해 일찍부터 역사기술의 양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것을 문학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의 문학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전〉은 그와 유사한 行狀 등과 달리 작가의 작의성이 가미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단순한 기록물에서 벗어나 이른 시기부터 문학과 접맥되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이 문학의 범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좀 더 치밀하게 따져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모든 〈전〉을 다 문학작품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반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의 특성도 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史傳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 와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윤영옥은 〈삼국사기〉 열전의 김유신條를 분석하여 이 작품의 구성이 가계, 출생-결연-고행-회운-행복-결말로 되어있는 고소설의 구성과 흡사하다고 하며 일찌기 사전과 고소설의 구성문제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³¹⁾ 나아가 그는 충, 효, 열, 우애 등 김유신이 보여주고 있는 사고의 내용이 고소설의 보편적인 주제와 대차 없고, 神異婚, 胎夢, 戰術 등의 소재도 고소설의 것과 유사하다 하여 앞의 주장을 뒷받침해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심정섭이 〈삼국사기〉 열전을 대상으로 그 史傳的 의의와 문학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다.³²⁾

史傳은 史官에 의해서 역사기술의 한 양식으로 쓰여진 것이다. 〈전〉을 기술하는 사람의 사사로운 주관적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고, 객관적 입장에 서서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다. 사전에 비해 문인들에 의해 사사로이 지어진 家傳(私傳)은 기술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향간에 묻혀있던 인물을 입전하며 그의 행적을 聞見에 의지하기도 함으로써 기존의 〈전〉 양식에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31) 尹榮玉, 三國史記 列記 金庚信攷(東洋文化 14, 15會併號, 嶺南大 東洋文化研究, 1974).

32) 沈晶燮, 三國史記列傳의 文學的 考察(文學과 知性 10권 1호, 1979).

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家傳(私傳)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전>의 양식적 특성을 미학이나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소설과 같은 인접 갈래와의 대비를 통해서 밝히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성기옥은 조선전기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미학적 측면에서 <전>의 양식적 특성을 밝히려 했다.³³⁾ 그는 <전>이 인물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후대에 전수하는 두 가지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다 하며, 이것이 <전>을 특성화시키는 미학적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인물에 대한 해석은 그의 품성을 통해 드러나며 이 때문에 해석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 구성에서도 삽화적 구성을 취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수는 인물의 규범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 때문에 서술자와 작가가 일치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이 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형태이든 아니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형태이든, 소설과 영향관계를 지니고 있는 아니든 모든 문제는 결국 <전>의 양식적 특성이 해명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인데, 양식적 특성은 그 자체의 표현논리인 미학, 그것을 드러내는 기술방식인 수사학적 문제와 연결되어 해결될 때 또 다른 설득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학이며 수사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 시기의 <전> 연구가 한 걸음 더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과 전수를 <전>의 미학적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그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해석은 해석을 지향하는 그 자체가 전을 전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드러내는 방식의 독특함이 전을 특성화”³⁴⁾ 시키는 것이라면, 과연 해석을 <전>의 미학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쟁꺼리로 남겨질 수 있다. 그는 또한 <전>이 사실의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와 허구의 진실을 추구하는 소설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허구와 사실은 소설과 비소설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

33) 성기옥, 傳의 장르론적 검토(울산어문론집 1집, 울산대 국문과, 1984).

34) 성기옥, 위의 글.

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에 실재했던 인물의 행적을 기술함에 있어서 기술되어진 내용의 허구와 사실을 판가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엄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 있는가 하면 허구적 사실이 가미된 역사도 있다. 〈전〉을 역사와 소설의 중간적 양식으로 보는 것은 양식의 浮動性을 내세워 후대의 〈전〉이 소설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전〉은 본래 聖經의 宗旨를 해설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역사기술의 양식으로 정착되어진 것이다. 〈전〉이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실을 추구하는 양식이며, 역사와 소설의 중간적 형태를 속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구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역사와 소설의 중간적 양식으로 보는 것은 〈전〉의 속성 자체를 오도시킬 염려가 있다.

김혜숙은 〈전〉을 書事(記事) 및 야담과 대비시켜 그 특징을 찾아보고 있다.³⁵⁾ 서사(기사)는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특이한 하나의 사건이나 일화를 제보의 경위와 함께 사실 보고식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서사의 소재가 될 만한 몇 개의 일화가 모여 기술자의 주관적 서술과 혼합하여 재편성될 때 〈전〉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야담은 書事的인 소재가 기록되지 않고 구전됨으로써 존재하는 양식이라 하고, 입전되는 인물의 행적이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 〈전〉은 흔히 야담적 일화를 채용하게 된다고 했다. 단편적 사건이나 일화가 즉시 기록에 옮겨져 몇 개 모여 재구성되어 〈전〉이 되었다고 보아, 동일한 일화가 서로 다른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 경위를 찾아보고 있다. 〈전〉을 소설 이외의 다른 서사양식과 대비시켜 그 특성이나 다른 양식과의 관계가 더 폭넓게 드러날 수 있었다.

박희병은 〈전〉과 소설의 관계양상을 찾아보려 했다.³⁶⁾ 〈전〉은 특정 인간의 삶을 서술하는 한문학의 한 양식으로, 그의 삶에서 규범적 가치를

35) 金惠淑. 傳·書事(記事)·野談의 대비적 고찰(한국 판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36) 박희병. 한국문학에 있어 전과 소설의 관계양상(한국한문학연구 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끌어내려 하므로 일화의 나열적 제시라는 서술원리와 함께 일화들은 입전되는 인물의 덕성이나 품성이라는 하나의 중심에 의해 내적 통일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것은 <전>이 이미 찾아낸 가치를 적절한 例話를 통해 追認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며, 이에 비해 소설은 사건의 인과관계나 갈등구조 속에서 그런 가치를 찾아가는 장르라 했다. <전>이 直書를 본령으로 해서 상상력을 자제하는데 반해 소설이 창조적 상상력을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했다.

<전>을 가치추인 장르로, 소설을 가치모색 장르로 본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이다. 이렇게 본 것은 <전>이 據事直書의 원칙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소설은 사건의 인과적 전개에서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양식이라고 본 때문이다. <전>의 이같은 속성은 그 자신도 지적했듯이 려말선초에 쓰여졌던 家傳에 한정시킬 때 타당성을 갖는다. 더구나 <전>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치추인 뿐 아니라 가치모색의 측면도 함께 나타나 있다. 사마천 자신이 규범적 가치를 전수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의 성격을 이렇게 한정시킨다면 나중에 <전>이 소설화되어 갔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가치추인 양식이 모색양식으로 轉移되어진 양식내적 근거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은 가치추인과 모색의 두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 작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안창수는 연암의 九傳을 대상으로 소설과의 관계 위에서 <전>의 양식적 특성을 파악해 보려 했다.³⁷⁾ 이 글은 九傳의 갈래를 규명해 보기 위한 동거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과 소설의 양식적 차이를 밝히고 있다. 아홉 편의 작품에 나타난 기술방식을 분석해 본 결과 <전>으로 귀속되어야 할 작품들은 인물의 행위나 사건이 작가의 직접적인 설명에 의해 기술되어 있고, 소설로 귀속시켜야 할 작품들은 작중인물들이 자기

37) 안창수, 연암 한문단편의 재검토(영남어문학 18집, 영남어문학회, 1990).

들의 삶을 스스로 연출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전개의 방식에 있어서도 후자에 속하는 작품의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맺으며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며 완결되어지는 데 비해 전자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는 編年綴事에 의지하거나 몇 개의 일화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전〉의 변모양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이 양식의 변화과정을 거쳐 다른 양식 특히 소설화되어 갔던 양상을 규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계열의 소설이 소설사에서 일정한 사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태영은 열녀전과 李光庭의 傳作品을 대상으로 〈전〉이 소설화되어 가는 양상을 파악하려 했다.³⁸⁾ 열녀전 유형은 상당히 널리 편재되어 있는 유형인데, 그 중에는 규범적인 〈전〉의 형태에서 이탈해 있고, 사건서술이나 전개, 성격묘사 등에서 소설적 서술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광정의 작품인 〈정효자전〉과 〈정순부전〉도 서사형식과 구조 그리고 서사의식의 측면에서 소설 양식의 요건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이 지니고 있는 서술원리를 찾아보고 이것이 변모되어 왔던 양상을 규명하려 했다.³⁹⁾ 초기의 〈전〉을 논술류의 경전과 사서류의 〈전〉으로 나누어 서술원리를 찾아보고, 이것이 敍人述事的 〈전〉에 와서 서술의 중심이 해설에서 서사로 옮겨졌고, 列傳에서는 삼화적 서술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허구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고, 私傳에서 단편적 사실의 나열이나 일화의 누적 그리고 유기적 구성을 취하기도 하며, 逸士傳에서 일사의 행적을 누적으로 서술하다가 그의 존재양식을 탐구하고 삶의 형식에 대응하는 서사형식을 취하며 소설이 되기도 했다고 보았다.

38) 趙泰英, 傳樣式的 發展樣相에 관한 研究(서울대 석사논문, 1983).

39) 趙泰英, 〈傳〉의 서술양식의 원리와 그 변동의 원리(韓國文化研究 2집, 京畿大 韓國文化研究所, 1985).

이경우는 권근과 허균 그리고 박지원의 <전>을 대상으로 변모양상을 살펴보고 있다.⁴⁰⁾ 개인문집 소재의 <전>은 史傳과 달라 그것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권근에서 허균 그리고 박지원의 <전>으로 나아갈수록 사건의 특징에서 벗어나려는 이탈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박지원의 <양반전>과 같은 작품에 이르러 완전히 소설로 변모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균태는 조선후기의 <전>이 야담적 취향을 드러내는 양상을 통해 그 변모양상을 살펴 보았다.⁴¹⁾ 그는 야담을 <전>의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하여 특히 세태를 소재로 한 완형 서사체의 작품으로, <전>을 인물중심의 행적을 서술한 傳記로서 입전되는 인물의 삶을 해석하여 전수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작품으로 보고, 조선후기의 <전>이 야담적 내용을 수용하면서 삽화중심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완결된 서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야담적 취향을 강하게 드러내며 조선후기의 <전>이 허구적 서사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원은 박지원과 李鉉 그리고 김려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전>이 사실을 수용하여 변모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⁴²⁾ 대상으로 삼은 세 사람의 <전>은 대부분 소외된 계층이거나 하층민들을 입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記述者는 대상인물들에 대한 사실자료의 빈곤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聞見에 의지하거나 허구적 창의에 의해 보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이며 傳記적인 자료의 나열이 현저하게 줄고 주관적인 창의력이 발휘되었으며, 구성이나 인물의 성격, 배경묘사 등에서 문학적 처리의 수법이 나타나며 소설화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전>의 변모양상에 대한 고찰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상당히 의욕적으로

40) 李京雨, 文集所載 傳 樣式의 變貌樣式(韓國 판소리·古典文學研究, 亞世亞文化社, 1983).

41) 金均泰, 朝鮮後期 人物傳의 野談趣向의 考察(韓國漢文學研究 12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42) 朴峻遠, 朝鮮後期 傳의 事實受容 樣相(위의 책).

이루어져 성과도 만족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분야, 즉 〈전〉 계열의 소설이 소설사에서 일정한 사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전〉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자료도 더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철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전〉이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사회 역사적이며 사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것을 〈전〉의 양식적 특성과 결부시켜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오며 중국 측의 개념과 양식의 원리가 중요한 지점이 되어왔다. 〈전〉이 본래 그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은 우리 나름대로의 내재적 필요성에 의해 차용되고 이 과정에서 변모되며 일정한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것을 찾아봄으로써 〈전〉을 우리의 내발적인 문학사의 범주 속에서 다루어보려했던 것이다.

박혜숙은 고려후기의 〈전〉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사대부의식을 찾아보려 했다.⁴³⁾ 고려후기의 〈전〉이 무인정권기에 새로이 관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대부들의 양식으로 토착화됐으며, 그들이 신흥사대부계급을 형성하여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전〉은 관계에 진출하던 초기 사대부들의 위축된 지위와 의식의 이중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문제삼는가 하면, 세력권을 확보한 신흥사대부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 창작되기도 했다고 보았다.

박희병은 고려후기에서 선초까지의 인물전을 대상으로 작품전개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것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 보려 했다.⁴⁴⁾ 이 시기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한 신흥사대부계급과 〈전〉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켜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이

43) 박혜숙, 고려후기 傳의 전개와 士大夫意識(冠岳語文研究 11輯, 서울대, 1986)

44) 朴熙秉, 高麗後期~鮮初의 人物傳 研究(釜山漢文學研究 2輯, 釜山漢文學會, 1987).

신홍사대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며 겪어야 했던 자기인식의 성장과 갈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강렬한 역사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양식으로 <전>이 주목받으며 성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영은 訥隱 李光庭의 <전> 일곱 편을 대상으로 사회의식적인 측면에서 입전의식과 서사의식을 살펴보고 있는데,⁴⁵⁾ 이 작품들이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는가 하면, 인간적 생존권과 존엄성에 눈떠가는 민중의 표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인과 노비 사이의 박진감 넘치는 갈등을 통해 신분제의 동요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광정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의 인물인데, 그의 <전>은 이 시기에 이미 사회적 문제의식을 <전>을 빌어 드러내는 풍조가 폭넓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태영은 공적자아와 자아구조라는 좀 생경한 개념을 사용해서 최해, 이색, 이첨, 권근, 이송인 다섯 사람의 <전>에 나타난 려말 신진사류의 존재양식과 그것들을 현실 속에 매개해 주는 자아구조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고,⁴⁶⁾ 윤재민은 중인신분의 작가들이 지은 <전>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그들의 계층적 성격을 찾아보려 했다.⁴⁷⁾ 중인들에 의해 지어진 <전>은 그들의 계층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신분적 모순에 대한 항의를 배경에 깔고 있다고 보았다.

III

<전>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는 주로 假傳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가전이 지니고 있는 허구적 창의성에 주목하여, 가전이 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양식이라고 파악했던 때문이다. 설화에서 가전으로 가전에서 소설

45) 金 泳, 訥隱 李光庭 傳의 文學世界(泰東古文研究 4輯, 翰林大, 泰東古文研究所, 1988).

46) 趙泰英, 麗末 신진사류의 존재양식과 傳(湖南大 論文集 10輯, 1989).

47) 尹在敏, 中人 傳의 계층적 성격(韓國漢文學研究 12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89)

로 양식의 발전을 거쳐왔다는 진화론적 도식이 이런 발상에서 나타나고, 소설의 발생적 근거를 선행하는 양식에서 찾아보려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전〉이 주목되어졌다.

양식의 역사를 線的인 맥락에서 발전과 쇠퇴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재검토되며 이같은 진화론적 도식은 이제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의 양식적 특성이 소설에 끼친 영향은 과소평가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런 점에서 80년대 이후 〈전〉이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인식되며, 〈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假傳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 일반으로 확대되었다. 연구 대상의 확대 이외에도 미학과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인접갈래 특히 소설과의 관계에서, 변모양상에 대해서, 사회 역사적이며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전〉의 양식적 특성과 형성배경, 담당층의 의식구조, 변모양상 등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전〉을 서사문학으로 다루려는 입장과 교술문학으로 다루려는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갈래귀속 문제마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전〉을 서사문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술문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작품분석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갈래귀속 문제는 〈전〉의 변모양상이나 인접갈래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논쟁거리로 작용한다. 예컨대 〈전〉의 변모양상을 논하며 많은 연구자들은 〈전〉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소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허구적 서사화의 작업이 가속화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이 서사문학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이 교술문학이라면 이런 논리는 중요한 장애에 부딪힌다. 어째서 갈래의 轉移현상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접갈래와의 관계를 추적해 보려는 노력은 〈전〉의 양식적 특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전〉의 특성이 인접갈래와의 대비를 통해 상대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접갈래와의 관계를 밝

혀보려는 노력이 대비의 정도에 머물러서는 미흡하다. <전>과 인접갈래와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우리 문학의 양식사를 형성해왔던 역동적인 관계의 맥락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변모양상을 추적해 <전>의 소설화 현상을 밝히려는 노력도 좀 더 다양한 관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의 변모가 양식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문학사적인 흐름과 사회 역사적인 흐름이 일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변모양상을 추적하는 보다 진정한 의미는 이같은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전>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찾아보는 일일 것이다. 단순히 소설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근원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데에서 더욱 가치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의 소설화 과정을 추적해 보는 하나의 목표가 이 계통의 작품이 우리 소설사의 한 가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할 것이다.